

2) 요술쟁이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공주와 사랑에 빠진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배워 마침내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농부의 아들에게 왕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술을 배워 온다면 딸을 주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농부의 아들은 요술쟁이에게 요술을 배우기로 했지만 요술쟁이는 자신의 재주를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요술쟁이 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요술쟁이가 죽이려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동물로 변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기술이 왕에게 인정을 받아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 위기 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즈베키스탄이 12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공통적인 예절, 음식, 축제 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이슬람 왕조였지만 지금은 우리와 같은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재능이나 기술은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왕은 딸과 결혼하길 원하는 농부에게 무엇을 배워오라고 말했나요?
- 요술쟁이는 요술을 배우러 온 제자들을 왜 죽이려고 했나요?
- 농부의 아들이 자신을 구해 준 요술쟁이의 딸로부터 배운 요술은 무엇인가요?
-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부려 9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알아봅시다.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종매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종매인을 통해 결혼하나요?

Tip!

우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편 「요술쟁이」 '이건 뭐예요' 에 '종매인' 에 대한 내용 참고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과거에 종매인을 통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의 집으로 종매인을 보내곤 했습니다. 종매인들은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연애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을 할 때 40일간 결혼잔치를 치렀는데, 왕가의 결혼식은 보통 그랬나요?

Tip!

옛날 왕가에서는 40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서 공짜로 밥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면서 진행됩니다.



체험해 봅시다.

-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원어를 따라해 봅시다.
-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부려 다른 모습으로 변한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따라해 보고 주문을 외어 봅시다.
-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술'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로 바꾸어 보고, 사람이 이롭게 할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봅시다. 어린이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가장 좋은 기술을 뽑아 봅시다.



참고자료

-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편 「요술쟁이」 '이건 뭐예요'에 '중매인'과 '뚝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 동화의 내용이 과거 이슬람 국가의 전제주의적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아래 두 책을 참고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희수 (2010), 『톡톡 이슬람: 문화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검동소
이희수 (2007),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슬람-우즈베키스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